

나와 책이 독대하는 독서의 진정성 잘 살려야

수준 높은 독서 프로그램,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 점치는 바로미터

훌륭한 책 프로그램을 갈망하면서도 가끔 의심스럽다. 텔레비전과 책은 근원적으로 상극의 미디어가 아닐까. 비주얼과 사운드로 승부하는 텔레비전 텍스트 vs 자음과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활자 텍스트.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질료로 세상을 향해 말을 건다.

글_정여울

장수 책 프로그램, 문화적 DMZ를 사수하는 일

조용한 묵독, 저자와 독자와의 완전한 1대1의 만남을 가정하는 책. 그리고 화려한 스펙터클과 생생한 사운드를 무기로 날이 갈수록 격심한 시청률 경쟁의 전쟁터가 되어가는 텔레비전. 어찌면 다매체시대의 격렬한 시청률 토너먼트 속에서 책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투쟁일 것이다. <낭독의 발견>이나 <TV, 책을 말하다>가 십야 시간대로 밀려나면서도 장수 프로그램으로 마니아들을 감싸 안는 모습은 그래서 그 자체로 소중한 의미가 있다.

책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독립적인 방송국이 생기지 않는 한, 이런 장수 프로그램들을 매 개편 때마다 지켜내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DMZ를 사수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수준 높은 독서 프로그램의 존재는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점치는 정확한 바로미터 중 하나다. 아직은 멀고 험한 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방송 중에는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특별한 극적 요소 없이 그저 조용히 책의 중요한 대목을 조용히 낭송해주는 저자의 목소리가 청취자의 소박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책에 대한 왈가왈부보다는 책 자체를 무념무상의 분위기로 '낭독' 해주는 프로그램은 그 어떤 책 광고보다도 호소력 있었다. 비주얼을 삭제하고 소리의 질감으로만 만나는 책은 보다 정겹고 보다 따스한 정서로 다가왔다.

라디오의 장점은 MC의 외모와 표정, 세트의 비주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책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때로 비주얼은 사운드를 속이고 사운드는 콘텐츠를 속인다. 화려한 비주얼로 승부하는 댄스가수는 립싱크로 허점을 가리고, <오페라의 유령>에서 팬텀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유령처럼 떠돌던 그의 슬픈 영혼을 위장했다. 하지만 '낭독'은 콘텐츠를 위장하기보다는 콘텐츠를 증폭시킨다.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 모든 엄마 아빠들의 목소리는 동화책을 '듣는' 것이 '읽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증명해준다.

가치판단 주입하는 책 소개는 독자의 진정한 독서 방해할 수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책 프로그램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요약형 정보'로서의 책 소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읽기도 전에 책의 정보를 지나치게 '스포일링' 하는 책 프로그램은 독자에게 상상력의 장애물이다.

이 세상 어떤 책도 완벽하게 요약될 수는 없다. 요약은 진정한 독서의 과정을 삭제하는 독서의 '적' 일 때가 많다. 행복한 독서는 독자와 저자가 행간의 여백 속에서 정해진 런닝 타임 없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을 때가 능한 것이 아닐까.

한 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지나치게 양극화하여 소개하는 책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다. 책을 읽기도 전에 책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책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친절하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지양해야 한다. 미처 읽기도 전에 책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후벼 파는 프로그램은 책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생성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

베스트셀러 중심의 독서문화를 부채질하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위험하다. '느낌표 선정도서'라는 레테르가 그 책의 퀄리티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디어의 권력은 실로 막강했다. 가장 위험한 책 프로그램은 책을 읽기도 전에, 그 방송만 봐도 책을 다 읽은 듯한 '착시'를 선물해주는 방송이다. 아무리 훌륭한 책 프로그램이라도 책의 내용을 지나치게 속속들이 '재현'한다면, 독서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진정한 독서체험의 현장성을 반감시키기가 쉽다. 책에 '대한' 그 어떤 리뷰도 책을 읽는 과정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서평 원고를 청탁 받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경우는 미리 리뷰의 방향성을 지시 받을 때이다. 특히 '책을 비판하라'는 편집자의 요구가 가장 고통스럽다.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잠재적 독자들에게 책에 대한 냉정한 가치판단을 주입한다는 것 자체가 독서를 방해하는 일이 아닐까. "아무리 유익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의 절반은 독자가 창조한다"라는 볼테르의 메시지에서 '독자의 창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이 더 커지는 것 같다. 리뷰가 독자와 저자 사이의 다리를 놓는 메신저라면, 험담과 비판으로 얼룩진 다리보다는 되도록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가 낫지 않을까. 내가 읽었던 좋은 서평들은 하나같이 책을 '비판'하기보다는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책의 '잠재력'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글들이었다.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그 장점을 찾아내려 애를 써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책도 물론 있다. 그런 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침묵'일 것이다.

진행자도 책에 '몰입'하는 독자의 입장되어야

뛰니 뛰니 해도 책 소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다. 그가 대본대로 내용을 줄줄 암기하는 로봇 MC인지, 완독하지 않고 몇 장만 읽고서 다 읽은 양 뛰어난 연기를 펼치는 구라쟁이 MC인지, 진정 꾸밈없이 책을 완독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창조적 MC인지, 시청자들은 귀신 같이 식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기억하는 가장 유능한 책 소개 프로그램 아나운서는 <행복한 책읽기>를 진행하던 정은임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무엇보다도 책에 대한 순정한 '몰입'이었다. 매 방송마다 적어도 6권 이상의 책을 소개하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매번 소개하는 그 책 자체에,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그 순간만은 이 세상에 그 책과 그녀밖에 존재하지 않는 듯, 그녀는 책과 1대 1로 만났고,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 1이고자 했다.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성과 감수성은 두 번째 재능이다. 책이라는 매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태도였다. 그녀는 책을 미디어로 하여 세상과 독자가 1대 1로 맞장뜨는 것이 바로 독서임을 증명해주었다.

일찍이 폴 오스터는 책과 독자 사이의 1대 1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다. "문학'이 가진 흥미로운 점 하나는, 예를 들어 영화와 비교했을 때, 언제나 단 한 사람이 단 한 권의 책과 조우한다는 것이죠. 즉, 항상 일대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작가이고, 당신이 그 독자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한 페이지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곳이, 내 생각에는 인간의 의식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장소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이방인의 의식 속으로 잠입해, 우리 인간의 공통적 휴머니티를 발견하는 순간은 오로지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죠"(폴 오스터, 1996년 <월드가이드> 지와의 인터뷰 중에서). 폴 오스터가 말하는 '문학'을 '책'으로 바꾸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 아니 '나'와 '책'이 독대(獨對)하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밀월여행이다. **한글**

정여울 님은 문학평론가이자 문화평론가로 <공간> <씨네 21> <출판저널> <GQ> 등의 잡지에 책과 미디어에 대한 리뷰를 써왔다. 현재 한신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아가씨, 대중문화의 숲에서 희망을 보다>, 역서로는 <제국 그 사이의 한국> 등이 있다.

